

올해 주님께서 허락하신 많은 사역들을 저희가 잘 감당 할 수 있는 체력과 영력으로 무장할 수 있도록

2020년은 생각지 못했던 코로나와 함께 보냈었지만 모든 걸음마다 주님께서 함께 하셨던 것을 경험했습니다. 2021년 올 해는 어떤 일들이 벌어질 지 모르겠지만 신실한 주님께서 우리의 삶과 사역 그리고 열방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실 것을 믿습니다.

-성경적 세계관 학교-
작년 10월부터 2달간 성경적 세계관 학교 기본1차 코스를 온라인으로 (매주 월요일, 2시간) 은혜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각기 다른 지역과 직업, 나이가 다른 500여명이 신청해서 수업을 들었고, 200여명이 수업과 과제, 출석을 끝까지 하여 졸업했습니다. 삶의 모든 영역에서 (7가지 영역) 하나님의 말씀과 기독교 세계관을 가지고 이 나라를 세우는 리더들이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이번주 월요일부터 8주간, 1차 코스를 마친 사람들 중 100명을 대상으로 성경적 세계관 학교 2차코스 : 귀납법적 성경연구를 가르칩니다. 10명의 튜터들과 각 강의의 강사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또한 수업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각 영역의 리더로 일어나며 준비되길 기도부탁드립니다.



-대학생 사역-
오랫동안 대학교에서 공산주의와 사회주의 교육받은 학생들이 쿠바와 러시아에서 더 집중적인 훈련을 받은 후 지금은 이 나라의 리더가 되어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변화된 베네수엘라를 보기 원한다면 지금이라도 힘을 다해 대학생들을 대학교에서부터, 그리고 각 영역마다 성경적 세계관, 말씀 그리고 기도로 무장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키워내야 합니다. 이 일을 위해 MODU 라는 선교단체를 만들었습니다. (MODU - MOTUS DISCIPULUS UNIVERSITAS - Universal 제자 운동) 이를 위해서 지난 1월 28일부터 2월 11일까지 2주간 저희와 함께 사역할 18명의 MODU 코디네이터들을 카라카스로 불러 합숙 훈련을 잘 마쳤습니다. 9개의 도시로 돌아간 코디네이터들은 이번 주 월요일부터 대학 전도를 시작으로 사역을 시작합니다. 앞으로 현지 교회들과 협력하여 도시마다 사역을 확장할 예정입니다. 한 나라를 변화시키는 것은 한 선교사나 한 단체로는 불가능하기에 현지 교회들과 동역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동역하는 교회들이 좋은 모델이 되어 많은 현지 교회들이 이 사역에 동참하기를 기도합니다. 언젠가 이 땅의 모든 교회들 안에서 대학 사역이 활발해지고, 대학생들이 넘쳐나 이들이 대학들을 변화시킴으로 이 나라의 진정한 변화가 있게되기를 소망해봅니다. 할렐루야

-글로벌 리더십 스쿨-
작년 2월에 시작하였던 3기 글로벌 리더십 스쿨이 Covid로 인해 잠시 멈췄었지만 이번 주 월요일 부터 6주간의 훈련을 합니다. 비록 예전처럼 합숙을 할 수는 없지만 온라인 교육과 함께 각 도시에서 코디네이터들과 함께 실제적인 실습과 연습을 합니다. 합숙 훈련은 지금 상황으로 힘들기 때문에 3월1일부터 저와 엘리아 선교사가 락다운이 풀리는 격주마다 8개의 도시를 방문합니다. MARACAIBO를 시작으로 CORO, PUERTO ORDAZ, CIUDAD BOLIVAR, VALENCIA, MARACAY, APURE 그리고 CARACA를 끝으로 방문을 마칩니다. 이 방문을 통해 흩어져 있던 글로벌 리더십 (Escuela Liderazgo Global) 학생들을 만나고 Covid로 모이지 못하고 있는 신학교 목사님들을 만납니다. 봉고차를 운전해서 도시들을 방문합니다. 길게는 편도 15시간 거리의 도시들을 방문해야 합니다. 차량의 안전과 각 모임에 주님의 임재가 충만히 임하시도록, 서로를 격려하고 다시 한번 순종하고 헌신하기로 결단하는 시간들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 부터의 안전을 위해 기도부탁드립니다.

올해 주님께서 허락하신 많은 사역들을 저희가 잘 감당 할 수 있는 체력과 영력으로 무장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나라를 사랑하시고 저희를 사용하심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 사역에 동참해 주시는 귀한 동역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언젠가 만나서 주님이 하신 일들을 기쁘고 감사하게 나눌 날을 기다리며

-베네수엘라 김 도현, 강 미애 선교사-

-AFA FESTIVAL-
콜롬비아&베네수엘라 사랑의 불꽃 리우니 온 11월 25일에는 작년에 사랑의 불꽃을 하지 못한 아쉬움을 달래며 온라인으로도 함께 모여 찬양과 율동을 하며 주님의 말씀을 나누는 팀멤버 리우니온을 갖었습니다. 한기홍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시고, 160여명의 팀멤버들이 참석하였습니다. 올해 판데믹이 끝나는데도 콜롬비아 목회자 사랑의 불꽃 2기와 베네수엘라 목회자 사랑의 불꽃 8기, 그리고 대학생 사랑의 불꽃을 섬기기 위해 기도하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계획하는 날 짜들이 계속 연기되고 있지만, 기다린만큼 주님께서 더 큰 은혜로 함께해주시기를 기대합니다.



-VEN Y COME 어린이 밥상공동체-
작년에 판데믹으로 모이지 못한 어린이 밥상공동체는 12월 베네수엘라 락다운이 풀리면서 두번의 토요일에 모여 햄버거와 아자까(크리스마스 음식) 그리고 선물을 나누며 아이들과 즐거운 시간을 갖을 수 있었습니다. 비록 마스크를 쓰고 음식을 먹지 못해 집으로 가져가도록 하였지만 오랫동안 기다렸던 시간이었기에 아이들이 정말 행복해하였습니다. 올해 들어서 베네수엘라는 1주는 락다운, 1주는 자유로 풀어주고 있습니다. 마스크와 위생을 철저히 하며 3월부터 빈민가 어린이 밥상 공동체 모임을 다시 할 계획입니다. 각 교회들의 섬김이들을 주님께서 보호해주시고, 주님께서 이 사역에 은혜부워 주시도록 기도부탁드립니다.



<대학생 사역>



<글로벌 리더십 스쿨>



은혜한인교회 선교 소식

2021년 2월 21일 선교사 현황 53개국 323명 자체파송 74%

일상을 잃고 보니 그동안 누려 왔던 일상들이 얼마나 감사한지

-오토바이 사고-

작년 8월 23일 비 온 후 길이 미끄러웠지만 전주에도 비 때문에 못 갔기 때문에 사업체(교수)를 방문하다가 오토바이가 미끄러져 사고가 났습니다. 쇠골이 골절이 되었습니다. 호찌민대 병원에서 수술했습니다. 여러 분들이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셨습니다. 그중에 새빛 회사의 강명규 목사님은 수술 보증도 서주시고 매일같이 와서 간호하며 친형처럼 돌봐 주셨습니다.

-사범대 입학-

그 와중에 베트남어 중급시험 쳐서 합격하여 사범대 2학년에 편입하는 영광을 얻었습니다. 시험친후 긴장이 풀린 탓인지 몸살이 났습니다. 쇠골 수술 후 왼팔을 쓸 수도 없고 오토바이도 몰 수 없고 시간이 지난 후에는 자주 찾아 도와주시던 이웃도 없고 혼자 아파트에 덩그러니 던져져 있는데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난생 처음으로 '내 멘탈 조차 내가 믿을 수가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일상을 잃고 보니 그동안 누려 왔던 일상들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분 밖에는 의지할 데가 없었습니다. 코로나로 늦어져 11월부터 학교에 다니며 12월 말부터 오토바이를 조심스레 몰며 일상을 회복해 가고 있습니다.'



-사업(사역)-

택시타고 사업체들을 방문하고 때로는 강연요청이 오면 강연도 하며 조금씩 지경을 넓혀 가고있습니다. 가다가 사고났던 임모누엘 회사의 강연요청에 처음으로 영어로 강연했는데 사장께서 지회사들 돌면서 강연해 줄수 있느냐는 요청에 흔쾌히 하겠다고 했습니다. 앞으로 강연 사업이 열리길 기대해봅니다.



1월 19일에는 다른 업체 대표들 모임에 강연이 있습니다. 21년 새해 들어 매일 (월-금, 7:30-9:30) 저녁기도회를 하기로 했습니다. 혼자라도 하겠다는 마음으로 시작했는데 세 분이나 협력해 주셔서 매일 진행 중입니다. 더 많은 동업자들이 동참하여 큰발전있기를 소망해봅니다. 장소를 빌려주신 새빛회사에 정말 감사

사한 마음입니다. 코로나와 딸 대입을 두고도 현장을 지킨 것을 높이신 회장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같습니다.

기도제목

1. 21년에는 현지 동업자들과 동역으로 실질적인 사업학교 등을 개설하여 2차사역이 본격적으로 열릴 수 있도록
2. 이를 위해 업체(교수) 대표자들 집회를 3-4월 혹은 9월 경에 개최 했으면 하고 10년된 한 동업자와 계획 중 이를 위해서
3. 이런 사업추진에는 일군과 자금이 소요되는데 먼저 높은 회장님께서 결재해 주시고 임원 분들이 협력해주시기를
4. 나이가 있지만 쇠골이 속히 붙어서 핀을 제거하고 재활을 통해 건강과 일상이 회복되기를
5. 저와 한옥희님의 베트남어 연수와 딸들 학업과 특히 둘째 수정이 대학 입학에 위해서

-베트남 강00.한00 선교사-

광고

Amazon을 통해 GMI 선교사를 후원할 수 있습니다. Amazon account가 있으신 분들은 smile.amazon.com 으로 로그인 하신 후, "Grace Korea Church (Fullerton)"를 찾아 설정하시면, 구입하는 금액의 0.5%가 선교후원금으로 적립되게 됩니다. smile.amazon.com/ch/95-3861464.

“반드시 내가 광야에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사43:19)

샬롬! 우리를 둘러싼 현실은 여전히 광야 일지라도 반드시 광야에 길을 내시고 새 일을 행하실 주님을 신뢰하며 걸어갈 소망합니다.

-사역자들의 행진-

2021년 신년기도회와 청년부 찬양집회와 함께 “다시주님의 은혜를 회복하자.”라는 말씀의 주제 아래 주님의 일을 새롭게 시작하며 영적인 지경을 넓히기 위해 믿지 않는 마을에 가서 말씀을 전하면서 또한 환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비자와 비행편-

저희는 지금 비즈니스 초청 비자를 받기위해서 비자서류를 준비 하고 있습니다. 비자 서류가 준비되는 대로 비자센터에 서류를 접수하고 비자가 나오면 3월24일 인도로 출국하기 위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정기노선이 없는 관계로 인천-두바이-콜카타 (35시간)의 긴 여정으로 준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도출국 전에 하는 코로나 검사와 비행기 티켓팅 하는 일과 비행 경비도 채워지도록 그리고 모든일이 순조롭게 되기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건강-

저는 지금 비중격 만곡증이라는 코 연골이 한쪽으로 휘어져서 코막힘과 목에 항상가래가 붙어 있는 병으로 원래는 수술을 해야 하나 약물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이병이 깨끗하게 치료 되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인도 정00 전00-

인도의 반개종법

안녕하세요?

인도의 상황들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인도에 많은 주들이 반개종법을 발표하면서, 기독교에 대한 조치들로 저희들의 대처와 기도가 절실합니다. 지금 인도로 송금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어찌 대처를 해야할지?, 인도에 회사를 세워 송금을 받아야 하는 것인지?, 저희가 인도에서 회사를 세운다 하더라도 교회 이름으로 아닌 회사의 이름으로 송금이 보내질 수 있는 것인지?, 신학교를 운영하기위해 기존의 건물에서 학생들이 모아 기숙하며 훈련하는 것이 가능한 것인지?, 신학훈련을 위해 새로운 방법을 시도해야 하는 것인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이를 위해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주시는 지혜로, '뱀 같이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여' 넉넉히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인도 강00 이00 선교사-

쌍파올로 하늘 아래

할렐루야..

브라질에 하선.남성만 선교사입니다. 작년 브라질에 코로나로인하여 3월 20일 부터 봉쇄령이 시작될때 저희는 제1기 한국청년들 T.D를 준비하고 있었고 또 두번째 모잠비크 인카운터를 위하여 팀멤버 미팅을 막 시작할 때였습니다. 그리고 9월에 브라질 AFA 도 준비를 시작할때였습니다.

길어야 3-4주면 끝날줄 알았던 저희들은 8월말 까지 자유로운 왕래를 할수 없게 되었지요. 그뒤로도 조금 완화가 되어 모든 집회에 30-40%를 허용하고 점점 일상으로 돌아오나 싶었는데 다시금 브라질은 너무 코로나가 많이 번져서 주위사람들에게까지 확진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지금은 다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하여서 작년 한해는 영상으로 서로 안부를 묻고 기도회로 만났습니다. 올해에 사역을 어떻게 해야할지 브라질 코로나 사정이 너무 위험합니다. 저희는 올해 사역으로는 일단 인카운터를 소규모라도 시작하려고 합니다. 8강의를 녹화하여 영상으로 하고 성령집회만 실제 강의로 할려고 합니다. 모잠비크도 인카운터를 같은방식으로 할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고 모잠비크에 열약한 인터넷사정을 지원해 주는 방법으로 두군데 마푸트,샤이샤이로 지금 목사님들과 준비하고 있습니다. 브라질 코로나 상황에 따라 사역을 계획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쌍파올로에서 하선 남성만 선교사-

-중국 조00 윤00 선교사-

1.10 현장 모임의 불허 통보를 받고, 춘절(설날)을 앞둔 1.24 부터는 “온라인 모임까지 멈추라” 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젠 이런 조치가 그리 특별하지도 않다는 듯이 “뭐 어찌하겠나...” 하며 체념하고 수용하는 분위기입니다. 그러나 더욱 심각한 위협은, 진학과 취업 등 성공을 위해 과열된 교육열로 인해 어떤 형태로든 가능한 일요일 모임마저 뒷전으로 떠밀리는 풍토입니다. 외부로부터 오는 것은 그 무엇도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음을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녀들이 마음을 지키고, 그를 더욱 사랑하며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도록 두손 모아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우한의 랜드마크인 황학루와 마추안 김은영교회



- 금지된 온라인 모임과 현장 모임이 모두 속히 회복되기를
- 춘절 전후 모임들을 통해 협력 기관과의 관계가 더욱 견고해지도록
- 언어와 학업(논문), 신변의 안전, 가족의 건강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섬기는 사역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YAYASAN KELUATGA KASIH SETIA

사랑의 공동체 소식_기도편지, 인도네시아 남부칼리만탄, 반자르바루

할렐루야! 사랑하는 은혜한인교회 한기홍 담임목사님과 성도님들께.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히12:2). 인도네시아 사랑의 공동체에서 품고 기도하는 2021년도 표어입니다. 우리의 참된 소망과 기쁨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성령 충만하고, 날마다 깨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승리하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2021년 1월 17일, 남부 칼리만탄 수해지역>



<수재현장 방문 및 생필품(100봉) 나눔>



<전도대상자 가정 방문 및 생필품 나눔 (1월)>

-인도네시아 칼리만탄에서-

2021년도 1월 새해를 시작하고 한 달간 500mm가 넘는 폭우가 계속되며 많은 곳에서 수해 피해가 발생되었습니다. 70만명 이상 수재민들이 발생했고, 전도대상자인 가정들도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미약하지만, 하나님의 손길과 은혜를 구하며 가정을 방문하며 구제 사역 중에 있습니다. 그 가운데 자카르타에 있는 현지 교회(GKY)에서 수재민 구제 헌금을 사랑의 공동체에 보내 주셔서 생필품을 구입하고 나누었습니다. 사회 봉사과 구제, 복음 전도와 영혼 구원의 사역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성실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사랑의 공동체 사역-

교회로서의 허가는 아니지만, 주님의 몸된 교회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슬람이 강한 이 땅에서 개척한 현지법인 “사랑의 공동체” 건축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난 12월에 (구)건물을 모두 철거하고 새롭게 설계해서 현재 건축허가 서류를 진행 가운데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 가운데 사랑의 공동체가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운영진과 (구)사랑의 공동체 건물>



<건물 철거 모습(12)>



<사랑의 공동체 건축 부지(230평)>

<기도제목>

1. 현장과 전도대상자 가정을 두루 다니며 예수님의 마음과 사랑으로 사역을 감당하도록.
2. 중풍병과 질병으로 전도 대상자 3명이 돌아가셨습니다. 절실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전도의 문이 열리고 동역하는 전도자들의 확장되어 칼리만탄에 복음화가 이루어 지도록.
3. 인격적으로 경험한 복음과 말씀을 담대하게 증거하고 전달할 수 있도록 현지 사역자들을 양성하고 훈련, 양육, 재생산이 잘 이루어 질 수 있도록
4.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의 공동체(그룹홈/보육원)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고 교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5. 지역 사회에 기독교 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가운데, 사랑의 공동체 그룹홈/보육원과 어린이 도서관 및 교육(유치원) 활동 등을 통해서 지역 사회에 선한 영향력, 빛과 소금이 되도록.
6. 사랑의 공동체 건축을 통해서 장기적인 사역을 위한 공간 창출과 그룹홈(보육원), 교육(유치원), 칼리만탄 사랑의 불꽃(IKGL) 졸업생 훈련과 재생산, 예배 처소 및 구제와 전도 사역 등-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사역의 통로가 되고 합당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네시아 김태환 주애니 선교사-

편찮으신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해주세요..

1. 네팔 이예신 선교사- 지난 9개월 동안 앓았던 악성 림프암의 6차 항암 결과 모든 림프암 세포들은 다 없어지고 항암제도 없는 혈액암은 그대로 있게 하셔서 날마다 제 날수를 계산하며 전능자만을 바라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2. 첼라빈스크 김봉년선교사- 전립선암 진단을 받아 수술을받았습니다 잘회복되고 완치될수있도록 주님의치유의손길을기도해주시기바랍니다
3. 터키양창모 선교사- 파킨슨병 가운데 주님의 은혜의 손길을간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깨끗함을 받도록 기도해 주시기바랍니다
4. 터키 최지섭 이해영선교사- 조직검사 결과 왼쪽 영치뼈로 암이 전이 되었습니다. 아내와 제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이 병을 이겨낼 수 있는 마음과 힘이 생겨나길 기도부탁드립니다.
5. 베트남 강00- 작년 빗길에 오토바이가 미끌어져서 쇠골에 핀을 받게 되었는데 쇠골이 속히 붙어서 핀을 제거하고 재활을 통해 건강과 일상이 회복되기를
6. 인도 정00- 비중격 만곡증이라는 코 연골이 한쪽으로 휘어져서 코막힘과 목에 항상가래가 붙어 있는 병으로 원래는 수술을 해야 하나 약물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이병이 깨끗하게 치료 되도록